제 1 전시실: 아리타 도자기의 역사

'아리타 도자기의 역사'에서는 히젠국(현재의 사가현과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된 자기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지난 4 세기에 걸친 히젠의 생산 기술,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유통, 해외와의 교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젠에서 생산된 도자기 중에서도 아리타 도자기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즈미야마에서 아리타 도자기의 도석이 발견된 이후의 발전, 아리타 도자기의 일본 국내외 교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의 역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 1 전시실에서는 간바라 컬렉션 101 점도 전시되어 있으며, 유럽에 수출된 아리타 도자기에 대해서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 2 전시실: 시바타 부부 컬렉션

'시바타 부부 컬렉션'은 에도 시대(1603~1868)의 아리타 도자기 약 10,000 점을 모은 것으로, 1990 년대부터 2000 년대에 걸쳐 기증되었습니다. 컬렉션 중에서 약 1,000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1 년에 1 차례 교체되고 있습니다. 아리타 도자기의 역사 속에서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 선정되며, 유행의 변천과 생산 기술의 발전을 알기 쉽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컬렉션은 국가등록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 3 전시실: 규슈의 고도자기

'규슈의 고도자기'에서는 매년 에도 시대(1603~1868) 작품 약 100 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현재의 현(県)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규슈(사가, 나가사키, 후쿠오카,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와 오키나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라쓰 도자기, 일본 최초의 자기(현재는 초기 이마리라고 불림) 외에도 그 후 발전하여 탄생한 가키에몬(유백색의 도자기 소지 위에 여백을 충분히 남긴 섬세하며 회화적인 구도가 특징)과 긴란데(자기 문양에 금색을 다용한 기법)의 아리타 도자기가 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각 현의 유명한 가마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는 규슈 각지 도자기의 다양성을 말해 줍니다.

제 4 전시실: 현대의 규슈 도예

'현대의 규슈 도예'에 전시되어 있는 독창성 있는 혁신적인 작품은 규슈에서 도자기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음을 보여 줍니다. 전통적인 것부터 전위적인 것까지 다양한 도예 기술을 구사한 규슈 각지의 작가 약 100 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1 년에 1 차례 교체되고 있습니다. 작품 대부분이 일본 미술 전람회와 일본 공예회 등 전통공예 관련 주요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의 작품입니다.